



물방개 / *Cybister japonicus* Sharp, 1873

구분	설명
생물분류	곤충
속국명	물방개속

과국명	물방개과
과명	Dytiscidae
일반특징	<p>몸길이 35~40mm이다. 몸은 넓적한 타원형이며 몸빛깔은 검은색인데 초록색을 띤다. 수컷의 등면은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있으며, 암컷의 등면에는 매우 가늘고 짧은 줄 모양의 흠이 파여 있어 거칠다. 앞머리 양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다. 앞머리의 양쪽 끝과 머리방패, 윗입술, 촉각(더듬이), 양쪽 수염은 황갈색이다.</p> <p>앞가슴등판의 양쪽은 넓고 가두리는 노란색이다. 작은방패판은 흑록색인데 평활하다. 딱지날개(굳은날개)는 바깥가두리를 따라 나비가 넓은 황갈색 띠가 있고 3줄의 점무늬로 이루어진 줄이 있다. 몸의 아랫면은 대부분이 황갈색이고 앞가슴돌기·뒷가슴조각·뒷밑마디내판은 흑록색이다.</p> <p>다리는 대부분이 황갈색이고 가운데와 뒷발목마디는 흑갈색이다. 앞다리와 가운데다리는 길지 않으며 뒷다리는 길고 굵다. 다리에는 털이 있으며 특히 뒷다리에 털이 많기 때문에 다리를 뒤쪽으로 뺀으면 추진력이 커진다. 다리를 동시에 좌우로 움직여 물 속에서 헤엄친다.</p> <p>수생곤충으로서 들판과 야산의 연못이나 늪, 하천 등의 물 속에서 서식한다. 기관으로 숨을 쉬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면 딱지날개와 등판 사이에 있는 공간에 저장한 공기를 이용해 숨을 쉰다. 또 궁둥이 끝에서 거품 모양으로 드나들며 물 속에서 산소를 얻는다. 다시 새 공기를 들여마시기 위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.</p> <p>성충은 연중 볼 수 있으며,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활동하고 불빛에 날아들기도 한다. 성충과 유충이 모두 육식성으로 물 속의 작은 동물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. 암컷은 알을 물 속의 풀줄기에 1개씩 낳으며 유충은 3~7일 만에 부화하고 여름에 볼 수 있다. 유충의 경우 꼬리 끝의 기관문을 수면으로 내어 공기를 들여마신다. 다 자란 유충은 물가의 땅 속에 구멍을 파고 번데기가 된다. 한국·일본·타이완·중국 등지에 분포한다.</p>